필리핀 여성노동에 대한 일고찰

김 민 정*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필리핀 여성노동참여의 특징
1. 직종별 여성고용의 추이
2. 주요직종내 여성노동의 내용
III.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여성노동
1. 경제정책의 실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2. 여성노동 내부의 계층별 양극화
IV. 필리핀 하층여성노동의 생존양식: 가부장제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잠정적 설명
V.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필리핀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평가는 무척 상반되어 보인다.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 남성들의 대부분은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나라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업가나 여성교수 등 전문직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필리핀 여성의 지위가 높음에 놀란다.[1] 다른 한편 운동단체와 관련된 방문객들은 필리핀의 가난과 가난한 여성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필리핀의 여성이야말로 제3세계 여성노동을 규정하는 3중고(저발전경제의 압박과 계급적 차별, 성차별)의 전형적 담지자라고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필리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주목하여 필리핀 여성노동참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노동분석 -- 고전경제학에 입각한 인적자원론뿐 아니라 맑시즘의 노동가치론을 포함한 -- 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공통된 문제제기는 자본주의화 과정이 남녀 노동참여변화에 미친 영향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여성노동문제를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기에는 노동시장 안팎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 그럼에도 여성이 그러한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불평등한 노동시장 안팎의 노동을 수행하는 구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지적되는 현상이 자본주의 노동시장내의 "성별분업구조"[2]이며, 보다 거시적인 사회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1) 이 글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말을 주신 조옥라, 신윤환, 정영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 성별분업구조란 성에 기초하여 노동과정내 행위자(agent)의 위치를 결정하는 체계, 성에 기초하여

관계로서 가부장제[3] 개념이 도입된다.

한편 제3세계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은 "성과 발전"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1970년 보즈럽(Boserup)의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는 제3세계의 발전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서구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임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비판하고,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제3세계발전론을 여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제3세계의 여성이 서구의 자본주의가 침투하기 이전에는 생계유지농경과 각종 무역, 상업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렸으나 이는 자본주의의 침투 -- 식민지로의 전락과 신식민적 종속상황-- 로 인해 왜곡되고 하락하였음을 산업별, 지역별 분석을 통하여 보여준다. 즉 제3세계 여성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열매도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제3세계의 발전과 여성노동에 관한 논의는 "발전과정속에서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는 증가하는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을 초래하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해 대별되는 두 입장으로는 "제3세계의 여성노동은 그 국가의 종속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그속에서 더욱 더 주변화되고 있다"는 세계체제론적 입장의 설명과 "제3세계에서 여성의 사회노동참가율은 증가하며 이는 여성의 지위상승(여성해방)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통 맑시즘적 설명을 들 수 있다. 대표적 논자로는 전자의 경우 워드(Kathryn Ward)를 후자의 경우 림(Linda Lim)을 들 수 있다.[4]

이 글에서 다루게 될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산업화에 기반한 필리핀의 경제발전과정속의

사회적 조직안에서 한 범주의 행위자를 특정 지위로부터 배제하는 체계, 그리하여 성차이의 사회적 형성을 강화시키는 체계를 의미한다.

3) 가부장제(patriarchy)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할 수 있고 개념의 적용차원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들이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는 가족내 남성가장이 가내여성과 연소남성에 대한 통제·감독권을 갖는 가족제 생산양식과 성별분업, 남성지배-여성예속의 조직원리를 포괄하는 다소 보편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다 이론적으로는 남성연장자가 상층을 차지하는 성과 연령에 따른 위계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와 위계구조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Heidi Hartmann, "Capitalism, Patriarch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1, 3 (1976).

4) Lim, "Women Worker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ntries : The Case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Malaysia and Singapore" : "다국적 기업의 여성노동자 -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의 전자공업의 경우",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78) ; Lim, *Women Workers i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Developing Contries* (Bangkok: ILO-UNCTC, 1985) ; Lim, "Labor Organization Among Women Workers in Multinational Export Factories in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 Bussiness* 6, 4 (1990) ; Ward, "Women in Global Economy", Gutek, Steinberg and Larwood, eds., *Women and Work : An Annual Review* 3 (London: SAGE, 1990) 참조.

여성노동참여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과 발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계체제론적 설명방식과 유사하게 여성노동이 보다 더 주변화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필리핀 여성노동의 주변화양상은 다소 복잡하다. 즉 경제발전수준과는 다르게 전문직 및 행정직내 여성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수출지향산업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생산직내 여성참여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이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고자 한다. 필리핀 여성노동참여양상이 자국의 남성이나 주변국의 여성노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점은 필리핀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노동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필리핀적'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인가? 필리핀 여성노동이 남성노동과 구별되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한편 여성노동내부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지속적인 국가빈곤상황내에서 다수 하층 여성노동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에서 여성노동이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상품화된 노동 또는 사회적 노동, 곧 본인과 본인가족의 직접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노동을 제외한 사회화된 노동의 의미로 사용한다.[5] 한편 필리핀의 농업인구나 전체산업내 농업의 비중, 여성노동내 농업노동의 비중 모두 아직 상당하며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과 관련하여 농업내 여성노동 변화는 중요한 문제이나, 이 글에서는 필리핀 여성노동에 미친 근대적 산업화의 결과에 보다 중점을 두고 비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일차적으로는 필리핀 여성노동참여와 관련된 통계수치들이나, 통계의 불충분함과 제3세계 여성노동과 관련된 통계의 문제들을 고려하여,[6]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필리핀여성의 수기나 생애사 기록 및 부분적인 지역조사 결과들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

5) 조은, "가부장제와 경제", 『한국여성연구』 (서울: 청하, 1988), p. 192.

6) 제3세계 여성노동 참여에 대한 국가통계에서는 우선 농업지역의 여성노동이 평가절하되고 있다. 농촌지역내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논과 밭에서 실제적 노동을 수행할 뿐더러 시기에 따라서는 농업노동자, 시장행상, 근처 공장일 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의 단절적 성격과 주부로서의 이중적 역할로 인해 실제 응답에서는 이러한 노동참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빈민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넓게 보면 여성응답자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한 가지 직업범주만을 선택하게 하는 질문이 조사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1905년 미센서스국 자료집에서도 한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필리핀인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필리핀 센서스는 기타 직업범주를 포함하여 복수취업상황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여러 다른 생산관계와 유형들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상황을 경제에 통합시켜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E. Eviota,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London: Zed Books, 1992), pp. 65-66.

II. 필리핀 여성노동참여의 특징

1960년대 이래 필리핀 여성노동참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수출지향산업화발전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생산직내 여성참여는 감소한다. 반면 전문직과 서비스직, 판매직내 여성참여는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1960년 이래 80년대 말까지 여성노동참여의 대략적 추이를 경제활동참가율과 산업별 고용율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필리핀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60-88 (%)

	1960	1970	1982	1988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	25.6	31.9	36.5	37.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4.0	30.6	43.7	47.3

* 1960, 70년은 10세 이상, 1982년 이후는 15세 이상
출처: 1960, 70년 수치는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45-89* (Geneva: ILO 1990), pp. 72-73에서 재구성. 1982, 88년 수치는 NSO, *1989 Philippine Yearbook* (Manila: NSO 1990a), p. 675에서 재구성.

필리핀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은 1960년 25.6%에서 1988년의 37.3%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0%에서 47.3%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표1 참조). 이는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태국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동남아국가에 비해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은 1960년의 26.8%에서 1990년 40.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6%에서 47.5%로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다.[7] 동남아국가의 통계

<표2> 필리핀 산업부문별 여성고용율 변화 1960-80 (%)

	1960	1970	1980
농업	45.8	40.0	37.0
공업	21.2	19.0	16.0
서비스업	35.1	41.0	47.0

출처: IL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950-2025* (1985); Tonguthai, "Women and Work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UN-ESCAP,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AP 1987), p. 199에서 재인용.

7) ILO, *op. cit.*;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통계지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9).

에서 여성수치가 평가절하 되었을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경제발전수준에 비해 동남아지역에서 여성 사회노동참여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특히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노동의 참여양태를 대분류 산업별로 보면, 1970년대 들어 서비스부문의 여성고용율이 농업을 앞질러 여성노동의 주요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여성고용의 변화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남성과의 차이 및 필리핀여성노동의 고용상 특징이 좀 더 뚜렷해진다.

1. 직종별 여성고용의 추이

<표3>과 <표4>는 여성의 직종별 고용율과 직종내 여성비율을 보여준다.[8] 여성의 전문·기술관련직 종사비율은 1960년 6.1%에서 1989년 9.3%로 성장하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직종내 여성비율도 51.1%에서 62.4%로 증가하여 남성비율보다 높으며, 더욱 여성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다른 동남아국가(태국의 경우 여성의 전문직 종사비율은 1960년 0.9%에서 1988년 3.6%로, 직종내 여성비율은 33.9%에서 52.7%로 증가한다)나 한국(1990년 여성의 전문직 종사율은 7.4%, 직종내 여성비율은 42.5%이다)에 비해서도 필리핀의 전문·기술직내 여성의 참여는 산업화초기인 1960년에 이미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표3> 필리핀 직종별 성별 고용율 1960-89 (%)

직종[1]	1960			1970			1975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0-1	2.9	6.1	1.9	5.7	10.5	3.6	5.1	12.4	2.8
2	0.6	0.4	0.7	1.2	1.1	1.2	1.1	0.9	1.1
3	2.3	2.1	2.3	3.3	4.0	2.9	3.9	6.7	3.0
4	6.1	2.6	4.0	6.8	12.6	4.2	7.5	15.7	4.8
5	6.1[2]	16.4[2]	2.7[2]	7.6	16.4	3.7	8.1	20.7	4.1
6	65.8[3]	39.4[3]	74.5[3]	53.7	34.0	62.5	53.9	25.5	63.1
7-9	15.5[4]	22.8[4]	13.1[4]	21.1	20.6	21.3	19.2	17.3	19.8
X	0.7	0.2	0.8	0.6	0.9	0.4	1.2	0.7	1.3
총수(천명)	(7,944)	(1,954)	(5,990)	(11,708)	(3,608)	(8,100)	(12,419)	(3,045)	(9,374)

8) 직종별 분류는 산업의 성격과 함께 노동시장내의 위계도 일차적으로 반영하기에 여기서는 직종별 고용수치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치는 ILO (1990, 1991) 통계이다. 한국의 여성고용수치는 필리핀 여성노동참여를 동남아 유형속에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첨가해 보았다.

직종[1]	1982 전체	1982 여성	1982 남성	1989 전체	1989 여성	1989 남성
0-1	6.3	10.1	3.4	5.5	9.3	3.3
2	1.1	0.6	1.4	0.8	0.6	1.0
3	4.7	5.6	4.1	4.1	6.1	3.0
4	11.0	20.0	6.0	13.6	24.4	7.3
5	7.6	12.7	4.9	9.1	14.8	5.8
6	51.1	39.0	59.2	45.1	32.1	52.7
7-9	18.1	11.9	21.0	21.6	12.7	26.8
X	-	-	-	0.2	0.2	0.2
총수(천명)	(17,371)	(6,101)	(11,270)	(22,345)	(8,228)	(14,117)

[1] 0-1 전문·기술관련직 2 행정·관리직 3 사무관련직 4 판매직 5 서비스직 6 농·축산·임업노동직 7-9 생산·교통장비기사·임노동직 X 미분류
[2] 서비스·스포츠·레크레이션노동직
[3] 농부·어부·사냥·벌채 관련노동자, 채광·채석·관련노동자
[4] 교통·통신직종노동자 노동직, 기술자·생산관련노동자

출처: 1960, 1970, 1975년 수치는 ILO, *op. cit.* (1990), pp. 608-11에서 재구성. 1982년 수치는 NSO,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4* (1985); UN-ESCAP,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in Asia and Pacific* (Bangkok: UN-ESCAP, 1987)에서 재인용. 1989년 수치는 NSO, *op. cit.* (1990a), p. 1318에서 재구성.

<표4> 필리핀 직종내 여성비율, 1960-89 (%)

직종[1]	1960	1970	1975	1982	1989
0-1	51.1	56.8	59.3	64.1	62.4
2	14.5	28.5	20.8	20.6	26.5
3	23.0	37.9	41.7	44.4	54.1
4	50.7	56.9	51.6	66.5	66.1
5	66.1	66.0	62.4	60.3	59.8
6	14.7	19.5	11.6	27.8	26.2
7-9	36.3	30.1	22.2	25.0	21.6
총수(천명)	(1,954)	(3,608)	(3,045)	(6,101)	(8,228)

[1] 0-1 전문·기술관련직 2 행정·관리직 3 사무관련직 4 판매직 5 서비스직 6 농·축산·임업노동직 7-9 생산·교통장비기사·임노동직 X 미분류
[2] 서비스·스포츠·레크레이션노동자
[3] 농부·어부·사냥·벌채 관련노동자, 채광·채석·관련노동자
[4] 교통·통신직종노동자 및 노동직, 기술자·생산관련노동자

출처: <표 3>과 동일

행정·관리직은 1960년대 이래 여성 중 1% 미만만이 종사하는 여성참여가 가장 낮은 직종이며 직종내 여성비율도 20% 내외로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주변 동남아국가나 한국에 비하여는 (여성의 행정 관리직 종사율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한국 모두 지난 20년간 0-1% 사이의 수치를 보여준다) 여성참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무관련직은 1989년 6.1%로 여전히 여성노동내 비중이 낮으나 1960년 2.1%에 비교해 볼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종내 여성비율도 1960년 23.0%에서 1989년 5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1960년 여성과 유사한 2.3%에서 1989년 3.0%로의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점차 여성직종으로 변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여성의 사무직 참여가 극히 미미하며 태국은 급격한 증가추세이나(여성의 사무직종사율은 1960년 0.3%에서 1988년 2.8%로, 직종내 여성비율은 13.3%에서 48.6%로 증가하였다) 필리핀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한편 한국의 사무직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볼 때 필리핀의 사무직내 여성참여는 높으나 사무직 자체 고용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의 사무직종사율은 1960년 필리핀의 1/10수준(0.5%)에서 1990년에는 2배수준(12.5%)으로 증가하나 직종내 여성비율은 필리핀보다 여전히 낮다).

여성의 판매직 종사비율과 직종내 여성비율은 남성의 경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1960년 필리핀여성의 판매직내 고용율은 12.6%, 직종내 여성비율은 5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에는 각각 24.4%와 66.1%를 기록한다. 또한 필리핀 여성의 판매직 종사율은 인도네시아(1971년 13.4%에서 1980년 18.3%로)나 태국(1960년 6.1%에서 1988년 11.5%로), 한국(1960년 7.0%에서 1990년 16.6%로)에서의 증가추세를 훨씬 앞지르며 판매직내 여성고용율도 필리핀이 인도네시아(1971년 43.9%, 1980년 47.8%)나 태국(1960년 55.8%, 1988년 60.6%)보다 높다.

남성의 서비스관련직 종사비율이 1960년 2.7%에서 1989년에는 5.9%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16.4%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14.8%로 감소하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여주며 남성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직종내 여성비율도 1960년 66.1%에서 1989년 59.8%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여성의 서비스관련직내 고용율은 낮으나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어 필리핀과 대조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여성의 판매직 및 서비스관련직내 고용율은 1980년 이후 급증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 심화에 따른 여성화현상이기에 동남아국가들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여성의 농·축산·임업노동직 종사율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1975년까지는 39.4%에서 20.7%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직종내 여성비율은 14.7%에서 26.2%로 2배 가량 증가한다. 한편 농업관

련직 종사율이나 직종내 여성비율 모두 일관된 감소와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가와 감소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남성과의 비교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국가의 여성참여 유형과도 다른 점이다. 태국의 경우 여성의 농업관련직 고용율은 감소하며(1960년 81.9%에서 1988년 65.1%로) 직종내 여성비율도 줄고 있고(50.8%에서 47.4%), 인도네시아도 미약하나마 마찬가지로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직종내 여성비율은 증가하나(1960년 30.5%에서 1990년 45.7%로) 여성의 고용율은 급격히 감소한다(65.3%에서 20.0%로). 즉 세나라 모두 여성의 농업관련직 고용율은 필리핀과 달리 일관되게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생산직의 경우 여성내 직종종사율과 직종내 여성비율 모두가 1960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남성과의 비교에서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주목된다. 직종내 여성종사비율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감소하고 태국의 경우도 1980년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생산직종사율은 인도네시아(1971년의 9.2%에서 1980년의 14.7%)와 태국(1960년 4.0%에서 1988년 8.7%로)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일관되고 뚜렷하여, 다른 동남아 국가의 경우 생산직내 여성종사비율의 감소는 생산직 자체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취업이 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여성의 생산직내 고용율은 1960년 경우 6.4% 로 필리핀의 1/4수준이였으나, 1975년부터는 필리핀을 앞지르며 종사율 및 여성비율 모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나타난 직종별 필리핀 여성고용상의 특징을 필리핀 남성과 다른 동남아국가(여기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및 한국의 여성고용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직종별 필리핀 여성노동참여의 특징

	직종\비교대상	필리핀 남성	인도네시아, 태국여성	한국여성
필	전문·기술직	높음	높음	높음(동남아와 유사)
리	행정·관리직	낮음	높음	높음(동남아와 유사)
핀	사무직	높음	높음	낮음
	판매직	아주 높음	유사(다소 높음)	높음(성격다름)
여	서비스관련직	아주 높음	유사(다소 높음)	높음(성격다름)
성	농업관련직	낮음	상이한 추세	높음(여성화율은 낮음)
	생산관련직	낮음	상이한 추세	낮음

다른 동남아 국가의 여성노동과 비교하여 볼 때, 필리핀여성은 전문직, 행정직 등 상위직종에서의 참여가 높다는 점과 여타의 하위직에서는 고용추이가 불안정하다는 특징

을 보여준다 상위직 여성의 높은 참여는 경제성장의 차이가 큰 한국과의 비교에서도 뚜렷하여 필리핀 여성노동의 주요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 남성과 비교하여서는 전문직, 판매직, 서비스직내 높은 참여가 특징적이다. 필리핀 여성노동의 생산직내 참여가 낮아지고 있음은 다른 동남아 여성 및 필리핀 남성 모두와 대조되는 점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필리핀 여성노동의 참가율이나 추이가 특징적인 네 직종, 전문직,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 주요직종내 여성노동의 내용

고용율이나 추이가 특징적인 전문직,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내에서 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가는 <표5>의 여성취업자수 순위표를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88년 현재 180만 명의 여성이 농업노동자로, 100만 명 이 자영판매자(소규모 판매업)로, 63만 명이 가정부(helper, maid)로, 63만 명이 판매관련노동자(가게점원)로, 58만 명이 자영농으로, 49만 명이 교사로, 37만 명이 의류 및 봉제노동자로, 25만 명이 기타 생산직노동자(토산품제조)로 일하고 있다.

<표5> 필리핀 여성취업자 수에 따른 소분류 직종 10위, 1988 (천명)

소분류 직종	여성취업자수
농업, 축산노동자	1,829
자영판매자	1,072
가정부, 가사보조서비스	636
판매, 상점보조, 관련노동자	636
농부	585
교사(감독 및 교장 포함)	491
재단, 양장, 봉제, 실내장식, 관련노동자	371
미분류생산관련노동자(토산품제조포함)	252
보안서비스노동자	231
서적판매원, 계산원, 관련노동자	170
총수	8,068

출처: NSO, *Occupational Data Bulletine, 3rd Qrtr. 1980-1989* (Manila: NSO, 1990), pp. 5-166 에서 재구성.

아래에서는 주요 네 직종에서 여성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업과 일의 내용을 차례로 살

펴보겠다.

1) 전문 기술관련직

<표6>를 보면 우선 전문 기술관련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교사와 의사(대다수는 간호사일 것으로 추측된다)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의사의 전문분야는 소아과나 산부인과이며, 남성일의 내용과 비교할 때 전문직내 여성 일의 범위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절반 정도되고,[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과학관련 기술자나 회계사 중에서도 여성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리핀 여성의

<표6> 전문·기술관련직종내 성별 종사비율 1980, 1988 (%)

여성	1980	1988	남성	1980	1988
교사(감독, 교장포함)	79.6	71.8	항공기, 선박고위직	100.0	100.0
의사등, 관련노동자*	71.6	71.8	판, 검사, 변호사	88.9	91.7
물리과학, 관련기술자	67.0	66.0	건축사, 엔지니어 등	73.0	88.4
미분류전문기술관련노동자	54.0	59.7	체육, 스포츠관련직업	100.0	85.3
회계사, 회계감사원	44.0	54.9	종교관련직업	70.2	64.9

* 간호원, 조산원이 포함됨.
출처: <표 5>와 동일

전문직내 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다양하며 전문적임을 보여준다.

전문직내 여성의 높은 참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에서의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10] 1977/8학년도의 경우 대학재학생 중 여성비율은 54.2%, 대학원은 63.7%, 석사 이상에서는 64.69%로 대학 이상의 교육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보다 높을 뿐 아니라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11] 여성의 전문직내 높은 참여와 고등교육에의 높은 참여 현상을 통해 필리핀사회의 상층여성에게는 성차별적 규정력보다 계급적 차이의 규정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2) 생산관련직

<표7>은 생산직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출산업인 섬유, 의류분야임을 보여준다. 한편 바구니류 등 전통생산품 제조와 여성의 생산직 진출이 처음으로 시작된 담배제

9) Tonguthai, *op. cit.*, p. 202.
10) 1980년 문자해독율은 여성이 83%, 남성이 84%로 거의 차이가 나지않는다.
11) UN-ESCAP, *op. cit.*, p. 191.

조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의 참여가 높으며 이 부문 역시 수출산업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여성노동의 역사는 스페인시기 담배제조와 미국지배시기의 자수 및 직조산업과 연결된다. 1930년대까지만해도 전체 생산직 노동자중 대다수는 직물공장 여성노동자였다. 1939년, 외국직물수입으로 국내생산은 크게 타격을 받아 -- 수입대체산업화의 도입 배경이기도 하다 -- 생산직내 여성비율이 1903년의 75%에서 44%로 감소한 이래, 생산직내 여성고용은 세계경기 및 대내외 무역조건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12] 1982년 세계적인 경기불황시기 필리핀 의류에 대한 해외수요는 1981년(8천5백만 달러) 보다 20%나 감소하여, 1983년 의류산업 여성노동자의 해고수치는 1982년(49,557명) 보다 44%나 증가하였다.[13]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중국의 바구니 수출 등도 필리핀 수공품 생산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14]

<표7> 생산관련직종내 여성 종사비율 1980, 1988 (%)

	1980	1988
재단,양장,봉제,실내장식,관련노동자	75.3	78.6
방적공 직공,편직공,건조공 등	65.9	68.5
미분류 생산,제조*	73.0	64.1
담배	60.2	55.8

* 전통생산품(등가구,바스켓,빗자루,악기 등)포함.
출처: <표 5>와 동일

이렇듯 필리핀의 제조생산직은 수출을 통해 세계경제체제와, 다국적 기업을 통해 국제노동분업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즉 세계경기의 흐름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전략의 변화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 생산직 여성노동의 참가율 저조추세는 이미 앞에서 본 바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도 필리핀의 경우는 림(Lim)의 주장처럼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례로 1982년 바딴(Bataan) 수출가공지대의 여성산업(섬유, 의류, 신발, 미분류제조업, 전자 등)에서의 연평균임금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다.[15]

생산직에서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임금뿐 아니라 억압적 노동통제,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병, 성희롱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가내수공업(cottage industry)의 하청고용형태나 개

12) Eviota, *op. cit.*, pp. 67-69.
13) R. del Rosario, "Life on the Assembly Line",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1 (1985), pp. 1-3.
14) *Ibid.*, p. 32.
15) Tonguthai, *op. cit.*, p. 216.

수제 임금의 보편화 현상은 수출산업화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직내 여성의 노동참여와 관련된 긍정적 논의들을 필리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16]

3) 판매직

판매직내 여성은 주로 자영판매인과 상점보조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표8 참조). 여성이 밀집된 두 범주의 고용인원은 1988년 각기 110만 명과 64만 명으로 이 두 수치의 합은 전체 판매직 고용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직내 여성비율은 1903년에 이미 39%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17] 이 직종내 높은 여성참여는 과거 전통적 여성경제활동영역의 직접적인 연장으로도 볼 수 있다. 또 판매직의 경우 관리직내 남성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낮다 (1988년 58.8%).

그러나 판매직내 다수의 여성이 속해있는 자영판매란 구멍가게(sari-sari store)운영이나 시장에서의 과일, 야채판매 등 생계유지 상업(subsistence commerc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자영판매는 별 기술없이 지극히 적은 자본으로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기본적 생존을 위해 참여하는 노동부문이다. 농촌지역 필리핀 여성들의 수기나 생애사 연구들은 판매직 노동의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준다.[18] 예컨대,

> 3살 사고로 한쪽 눈이 멀게된 에바(Eva)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행상인 어머니를 도와 쑤만(suman;바나나껍질에 싼 찹쌀밥)을 만들었고, 10살 때부터는 혼자 토마토와 양파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걸스카웃대장도 하고 명석한 학생으로 주목받았으나 결국 국민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야채행상으로 나섰다.[19]

---

16) Lim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내의 여성노동자 상태에 대한 비교를 근거로 수출산업화가 제3세계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이 사실이며, 이는 여성의 지위개선에도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주로 제3세계 여성노동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설명들인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Ward를 들 수 있다. Lim, *op. cit.* ; Ward, *op. cit.*

17) Eviota, *op. cit.*, p. 67.

18) CAW, *Tales of the Filipino Working Women* (Hong Kong: CAW, 1984); Gabriela NWC, *Gabriela Women's Update* (Manila: Gabriela 각호); J. Llaguno, "One Women's Way: Housework and Homework", *Review of Women's study* 2, 1 (Quezon City: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1991); M. Martinez-Sicat, "On Being Blind, Poor, Unmarried and a Woman in the Metro Manila", *Review of Women's Study* 1, 2 (Quezon City: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1990); J. F. Illo, *Fisher, Traders, Farmers, Wives*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 Press, 1992) 등 참조.

19) Martinez-Sicat, *op. cit.*, pp. 99-102. 여기서 인용된 Eva의 생애는 이후 마닐라로 가 일본행을 꿈꾸며 일본관광객들을 상대하는 댄서 여동생의 집안일을 돌봐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생계는 이들과 유사한 중하층 사람들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이 상대하는 고객은 만성적 실업과 불완전 실업으로 불경기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중하층 남성노동자의 부인들이거나, '가장 늦게 고용되고 가장 먼저 해고되는' 생산

<표8> 판매직종내 성별 종사비율 1980, 1988 (%)

여성	1980	1988	남성	1980	1988
자영판매인(도, 소매)	70.7	72.4	기술, 기계, 여행판매원	87.2	67.5
판매원, 상점보조, 관련노동자	71.3	67.1	관리자	73.1	58.8

출처: <표 5>와 동일

직 여성노동자들이기에, 이들 역시도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경제불황에 민감하게 타격을 받는다. 발린따왁(Balintawak)시장의 야채행상인 리디아(Lydia)는 현 경제문제가 자신의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분석한다.

> [1990년] 1월 이후 야채가의 상승은 판매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신선한 농산품을 구입하기위해 웨트 마켓(wet market)[20] 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바린따왁의 많은 행상들은 판매부진으로 신선한 상품에서 건조상품으로 대상품목을 바꾸어 판매부진시 남은 제품이 썩어 발생하는 자본손실을 줄이고자 한다. 이것이 결국 신선한 과일과 야채판매에 대자본이 필요한 이유이다. … 많은 도시빈민들은 벼룩시장(flea market)을 통해 형성되는 지하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 행상이나 음식리어카, 어린 소년소녀 심부름꾼 등은 이미 웨트 마켓(wet market) 노동으로 생계유지를 하던 이들이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한 단계 더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습들이다. 이들도 소비자의 구매력 악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나는 이것이 모든 행상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21]

이렇듯 (전통적으로는 여성의 활동영역이던) 판매직에서 여성노동은 이제 분산적으로 소규모 자영에 대거 종사하는 제3세계 여성노동의 비공식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

20) 필리핀은 아열대 기후인 탓에 건어물이나 건과일 등을 많이 이용한다. 이에 신선한 야채나 수산물을 파는 시장은 따로 웨트 마켓(wet market)이라 이름을 붙인다.

21) Gabriela NWC, *op. cit.* (1990 7-9월호), p. 9.

4) 서비스관련직

서비스직내 여성노동은 자본주의 경제내에서 비자본주의적 고용형태로 가사일을 직접 대신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에 주목된다. <표9>을 보면 서비스직종내 남녀직업은 모두 하위직종이며 남녀의 노동내용은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과 직접적으로 상응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종내에서 여성비율이 높은 직종은 세탁부, 가정부일이다. 이 분야에서 여성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수도 증가한다.

세탁부의 경우는 8년간 약 10만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13만 명이, 가정부는 약 50만 명에서 약 64만 명으로 14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산업화에 착수한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고용형태, 노동내용에 있어 전근대적인 가사보조서비스직의 여성종사율이 늘고 있고, 그 절대수가 8년 사이 14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서비스직내 여성노동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표9> 서비스직종내 성별 종사비율 1980, 1988 (%)

여 성	1980	1988
세탁부, 드라이크리닝, 다림질	97.5	98.3
가정부, 미분류가사관련서비스노동자	87.0	89.2
이, 미용사, 관련노동자	63.0	78.9
@ 미분류 서비스노동자*	23.0	31.6

남 성	1980	1988
보안서비스노동자	97.9	97.8
빌딩관리, 청소, 관련노동자	89.6	86.0

* 향락산업여성 및 관련노동자 포함
출처: <표 5>와 동일

1980년 이후 8년 동안 종사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세탁부의 경우 작업의 내용과 조직의 성격은 지극히 전근대적이며 비공식적이다. 1991년 메트로 마닐라내의 께손시(Quezon City) 로욜라 하잇츠(Loyola Heights) 주택가에서 필리핀 국립대학교(Univ. of the Philippines)와 아테네오 대학교(Ateneo de Manila Univ.) 학생들의 옷을 주로 맡아 일하는 세탁부(laundary woman)는 한달에 60벌의 옷을 빨래해 주고 200페소(한화 약 6,000원)를 번다. 이들은 정부산출 일일최저임금인 약 100페소의 돈을 벌기 위해 17집의 세탁을 맡아 한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34벌의 옷을 빨고 말리고 (우기에 빨래를 말린다는 것은 해가 나면 널고 비가 오면 걷고를 재빨리 반복해야 하기에 대단한 노동력의 투여를 필요로 한다), 다림질하여 매주 두

번씩 17집을 방문, 배달, 수거해야 한다. 세탁부로 일하는 여성들 중 다수는 수 명의 자녀가 딸린 기혼여성으로 남편이 해외노동자로 나가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사별하였거나 하여 가정내 주요 생계비 벌이자이다.[22]

해당 기간 14만 명이나 증가한 가정부(helper, maid)의 노동 및 고용성격은 더욱 전근대적이다. 이들은 흔히 주인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기숙하기에 노동시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임금은 1991년 깨손시 로욜라 하잇츠 중상류층 주택가의 경우 월 500페소(한화 15,000원 정도)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도둑으로 몰려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가는 일도 -- 이는 당장 다음 날부터의 먹을 것과 잠자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 비일비재하다. 농촌에서 상경한 미혼의 연소여성들은 이러한 헬퍼나 메이드로부터 사회노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필리핀 특유의 폭넓은 친척연결망은 대개 처음 도시로 올라온 미혼의 연소여성들의 취업망으로 작용하며 일시적 거주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친척집의 메이드로 와 있는 경우도 많다.[23]

서비스직내 미분류 서비스직종에는 향락산업여성(hospitality girls) 및 관련노동자가 포함되기에 주목된다. 직종내 종사자수는 1980년의 7만8천 명에서 1988년 15만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며, 여성종사비율도 기간내 23.0%에서 30.9%로 증가한다. 향락산업종사자만의 분리집계를 가지지 못하여 그 숫적 증가와 비중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초 수출지향산업화과정의 외화벌이 무드를 타고 정부정책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되었고, 이에 관광산업은 1972-73년 사이 45.8%나 증가하고 1972-77년 사이에는 연평균 30%라는 놀라운 성장율을 유지하였으며, 1979년 관광소득은 4억 달러로 외화원천의 2,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24] 향락산업내 여성종사자의 증가를 유추할 수 있다. 향락산업여성노동의 성격은 상당히 복합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나 무엇보다 우선 선진국 남성관광객이나 필리핀주둔 미군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부문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손쉬운 달러

22) 필리핀에 거주시 나의 옷을 맡아 세탁해주던 세탁부의 예이다. 그녀는 필리핀 국립대학 근처에 있는데 좁은집에 모터만 장착된 아주 낡은 세탁기를 한대 놓고, 여동생과 함께 학생들의 옷을 맡아 세탁하고 있었다. 보통 가정집의 세탁일을 맡아 하는 여자들 경우엔 세탁기 없이 손빨래를 하는 경우가 더 흔하였다. 옆집의 가정부 여자는 낮에는 그 집일을 해주고 저녁에는 주변 집의 빨래감을 맡아다 자기 집에서 세탁해다 준다 (말리고 다림질 포함). 그녀의 남편은 중동으로 일하러 갔으나 연락이 끊겼고, 그녀는 세 아이를 데리고 사는 가장이였는데 세부(Cebu)에 있는 친정집을 (차비가 없어) 10년 가까이 가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23) G. W. Jones, *Women in the Urban and Industrial Workforce: Southeast and East Asia*, Australian National Univ. Development Studies Center Monograph no. 3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 Press, 1984).

24) P. A. Cruz, "Filipinas for Sale",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1 (1985), pp. 1-7.

벌이 산업으로 여겨져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점이 제3세계 향락산업의 기본적 성격이다.[25]

향락산업종사여성의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다른 부문이 해외여성노동자이다 (표10 참조). 과거에는 간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 취업도 상당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가정부로(소위 마마상), 일본에서는 유흥업소에 (소위 자파유끼상으로) 취업하는 수가 점차 늘고 있다.[26]

이들이 필리핀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지대하다. 1984년 육지노동자로부터 4억 2천 2백만 달러가 송금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노동과 고용청(Bureau of Labor and Employment)은 1983년 10억 달러의 해외노동자 송금액으로 필리핀 경제가 당면한 지불계정의 어려움을 덜게 되기를 기대하였는데 실제로는 9억 달러가 송금되었고 이는 그해 제조업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이었다.[27]

이에 필리핀 여성의 해외노동은 외화벌이의 주요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장려되는 면도 있다.

<표10> 필리핀해외계약노동자수 및 유흥·서비스종사자비율 추이 1982-1988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전체(명)	314,284	434,207	425,081	389,200	414,461	496,854	477,764
육지노동자(명)	250,115	380,263	371,065	337,754	357,687	425,881	381,892
유흥·서비스종사자비율(%)	22.7	18.7	24.7	32.5	40.2	42.8	-
해상노동자(명)	64,169	249,222	207,888	150,074	131,294	144,541	95,872

출처: NSO, *1989 Philippine Yearbook* (Manila: NSO 1990a), p. 696에서 재구성.

25) 정부는 향락산업(hospitality industry)의 여성종사자들에게 각종 허가서나 진단서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만을 공식종사자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에 이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증명서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의 허가증 수수료 납부자이기에 정부의 재원조달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Ibid.*, pp. 8-9.

26)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7천명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전체 필리핀 여성노동자 중에서 76%가 가정부나 가사 서비스직 종사자이고, 1989년 싱가포르에서는 약3만 명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쿠웨이트에서는 전체 가정부 중 2/3이 필리핀 여성이다. Eviota, *op. cit.*, p. 144. 한편 일본에서는 1990년 현재 3만 6천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불법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7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hilippines Daily Inquirer*, 1991년 11월 21일). 근래에는 한국에도 불법외국노동자들이 늘고 있는데, 필리핀인은 연변 교포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한국에서 필리핀여성은 대개 열악한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나 가정부나 유흥업소에의 취업도 흔히 보도되고 있다.

27) W. S. Orozco, "Economic Refugees: Voyage the Commoditized",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 1 (1985), p. 12.

이제까지 살펴 본 필리핀 여성노동의 모습은 기본적으로는 산업사회내의 보편적인 성별분업의 내용을 보여주며 저발전 자본주의 경제내 여성노동의 전형적 측면도 보여준다. 그러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수출산업화 경제발전과정속에서 생산직내 여성노동참여의 하락과 비공식부문의 성격을 띤 판매직·서비스직내 여성노동의 참여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비공식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생계유지적 여성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III. 필리핀의 경제발전과정과 여성노동

수출산업화 경제발전과정속에서 생산직내 여성노동참여의 하락과 비공식부문의 성격을 띤 판매직·서비스직내 여성노동의 참여증가란 현상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정책의 실패에 그 주요원인이 있다.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던 1950년대말경 제3세계내에서 필리핀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로 1950년대의 경기가 한풀 꺽인 1965년만 해도 필리핀의 국내총생산은 60억 달러로 당시 30억 달러이던 한국수치의 2배였으며 여타의 아세안(ASEAN)국가들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필리핀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608달러로 한국(4,968달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태국(1,238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인도네시아의 537달러보다 아직 조금 더 높을 뿐이다).[28]

독립 직후 필리핀은 보호무역과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며 경제발전을 꾀하나 이는 어느 정도 제조업을 성장시킨 후 60년대에 들어서는 실패의 징후를 보여준다. 즉 제조업이 지닌 자본집약적 성격과 결부된 고용의 정체가 나타난다. 이후 정치적 혼돈이 이어지면서 1972년 마르꼬스(Marcos)의 계엄령은 수출지향산업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다. 기술관료, 수출자본가, 군부의 연합인 마르꼬스 정권은 막대한 해외자본에 기반하여 1975년까지는 상당한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이 되면서 무역적자, 재정적자, 외채증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1980년대에 들어 경제사정은 급격히 악화된다. 정치와 결부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경제부문의 측면에서 마르꼬스 시기 수출지향산업화는 사실상 국내제조업과 수출부문의 연관부재로 실속없는 외형적인 수치적 성과만을 기록하였을 뿐[29]

---

2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Washington D.C.: Oxford Univ. Press, 1990).
29) 1979년 원자재의 수입의존상황은 40.5%이며 수출소득도 상당부분 환상적이어서 섬유수출액 중 수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30]

무엇보다 필리핀의 경제발전과정은 농업과 공업간의 구조전환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이 지적될 수 있다. 아세안(ASEAN)국가 중 유일하게 필리핀만이 전체산업내 농업의 비중을 줄이지 못하였고 제조업의 비중 증가도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31] 특히 1980-86년 사이 산업별 생산증가율은 농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32]

입원자재 가치는 56%로 노동자에 의한 부가가치인 44%를 훨씬 넘고 있다. Walden Bello et al., *Development Debacle: The World Bank in the Philippines*: 김홍상(역), 『세계은행과 독재정권』 (서울: 사계절, 1985), pp. 210-26.

30) 세계은행과 필리핀의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의 관계에 주목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Bello, *op. cit.*를, 전반적인 필리핀 경제사에 대한 자국인의 비판적 분석은 Pedro V. Salgado, *The Philippine Economy: History and Analysis* (Quezon City: R.P. Garcia Pub., 1987)을, 보다 일반적인 필리핀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필리핀 '2월혁명'』 (서울: 민중사, 1987) ; B. M. Villegas, "The Economic Crisis", J. Bresnan, ed., *Crisis in the Philippine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 S. K. Jayasuriya, "The Politics of Economic Policy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Marcos Era", R. Robinson et al., eds., *Southeast Asia in the 1980's* (Sydney: Allen & Unwin, 1987) 등을 참조할 것.

31) ASEAN의 국내총생산내 산업비중 1965, 1988 (%)[1]

	농업		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1965	1986
인도네시아	56	26	13	32	8	14	31	42
말레이시아	28	21[2]	25	35[2]	9	19[2]	47	44[2]
필리핀	26	26	28	32	20	25	46	42
싱가포르	3	1	24	38	15	27	73	62
태국	35	17	23	30	14	21	42	53

[1] 브루나이 제외. [2] 1984년 수치임.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Washington D.C.: Oxford Univ. Press, 1988).

32) ASEAN의 산업별 생산증가율 1965-80, 1980-86 (%)

	농업		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65-80	1980-6	1965-80	1980-6	1965-80	1980-6	1965-80	1980-6
인도네시아	4.3	3.0	11.9	1.8	12.0	7.7	7.3	5.6
말레이시아	-	3.0	-	6.0	-	5.8	-	4.5
필리핀	4.6	2.0	8.0	-3.5	7.5	-1.7	5.2	-0.6
싱가포르	3.1	-3.5	12.2	4.4	13.3	2.2	9.2	6.1
태국	4.9	2.9	9.5	5.0	10.9	5.2	8.0	5.6

출처: *Ibid.*

필리핀여성의 고용구조는 이러한 산업구조전환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여성의 직종별 고용율은 수출대체산업화의 실패가 드러난 1980년을 전후로 하여 심하게 불안정한 추이를 보여주며, 여성노동내부의 계층적 차이도 커지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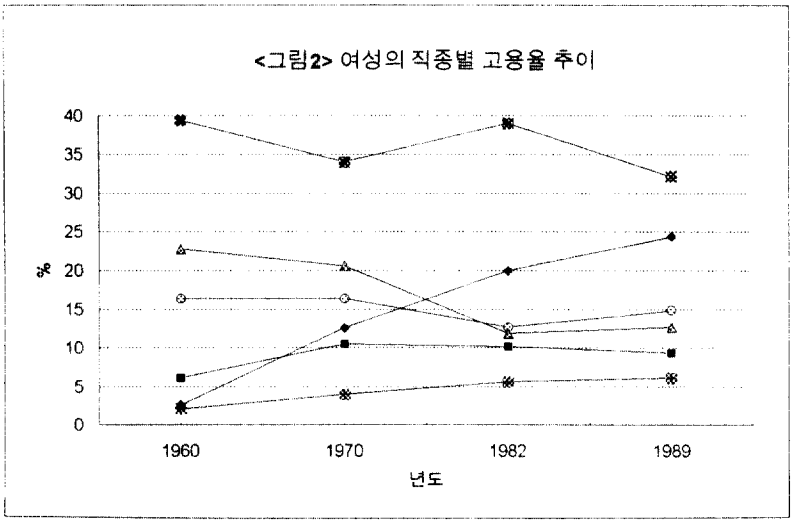
1. 경제정책의 실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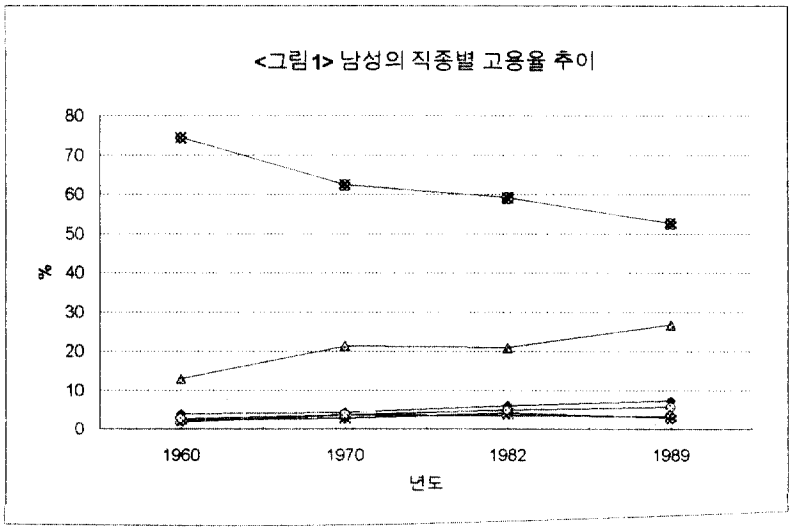
필리핀의 경제발전의 실패가 남성노동에 비해 여성노동에게 미친 가장 본질적인 영향은 노동의 불안정성 -- 고용추이 및 고용상태의 불안정성 -- 일 것이다.

우선 <표3>을 성별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그려보면, 첫째 남성과 달리 여성의 고용구조 추이는 전체 고용추이의 변화와 함께 변화지 않으며 직종별 증감의 추이가 일관되지 않고 불규칙하다는 점, 둘째 여성의 불규칙한 직종별 참여는 필리핀 경제의 주요국면인 1970년과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1960년부터 1989년 사이 일련의 산업화과정은 경제발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농업내 고용율을 꾸준히 감소시키고, 판매직은 꾸준히 증가, 생산직은 증감이 교차하나 약간 증가시켰다. 같은 시기 직종별 남성의 고용율의 추이도 이와 유사하다. <그림1>은 남성의 고용율이 농업직에서 생산직으로 변화하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 약간씩 증가하여 전체 고용율과 일치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구조추이는 무척 다르다. <그림2>은 그간의 산업화과정이 여성고용구조를 일관되게 변형시키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해당기간 동안 판매직내 고용율은 증가추세이고, 생산직은 꾸준한 감소추세이며, 서비스직과 농업부문은 증감의 교차가 반복되고 있다. 우선 거의 모든 직종부문에서 여성의 고용율은 시기에 따라 증감추세가 불규칙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 직종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보면 나름대로 여성고용구조의 불규칙성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





■ 전문·기술관련직
※ 사무관련직
◆ 판매직
◎ 서비스직
❖ 농·축산·임업노동직
△ 생산·교통장비·임노동직

수출지향산업화전략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과 거의 실패로 판정되는 시기인 1982년 사이의 직종별 고용율 변화에 주목하여 <그림2>와 <그림3>를 비교하여 보자. 남성고용의 경우 농업직의 감소와 생산직의 증가라는 일관된 추세는 다시 확인되는 반면 여성고용율은 서비스직과 농업에서 1970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바뀌고 생산직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더우기 서비스직과 농업간의 증감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 농업에서의 고용증가는 서비스직 고용의 감소로, 농업에서의 고용감소는 서비스직에서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는 농업이나 제조업같은 다른 생산적 노동이 가능할 때 여성은 가내 서비스나 사적 서비스 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한편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율의 변화는 여성들이 보다 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과 반대로 여성내 고용자 및 자영과 무보수 가족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하며 피고용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여준다 (표11 참조).

남성의 경우 고용자 및 자영의 비율은 1960년 51.6%에서 1966년 이후엔 42.3%수준을 유지하나, 여성은 28.9%에서 1970년대에는 약간 감소하다 80년대 들어 다시 상승하여 32.0%의 참여를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110만 명에 달하는 여성자영판매자의 존재와 그 증가율은 이 범주에 속하는 여성들 다수가 자본주의적 성격의 고용자라기 보다 판매직, 서비스직과 관련된 소규모 자영업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며, 피고용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추세이나, 해당기간 남성은 27.4%에서 46.2%로 2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966-70년 사이 10% 이상 성장한 이후 정체하여, 애초 남성보다 1.3배가 높았던 수치에서 10%만의 증가를 보여준다. 또한 수출지향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75년 사이 생산직 임노동자중 여성의 비율은 27%에서 21%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33]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산직내의 여성고용 조차 불안정한 지위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정부기관내 피고용자 비율은 1970년 이후에는 계속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실제 여성내 피고용자의 비율 증가는 제조업 생산직에서 보다 행정직이나 사무직의 증가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점은 앞 서 본 전문직내 여성의 높은 참여와 함께 상층부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추세를 반영하여 준다).

33) Eviota, *op. cit.*, p. 86.

<표11> 필리핀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1960-88 (%)

종사자 지위 / 성별		1960	1966	1970	1975	1981	1985	1988
고용자 및 자영	여	28.9	27.8	25.6	23.6	27.0	33.2	32.0
	남	51.6	42.5	44.0	43.7	43.8	43.5	42.1
피고용자	여	34.9	33.5	44.3	45.9	42.4	43.4	45.0
	남	27.4	34.8	40.3	37.3	41.5	44.0	46.2
사기업	여		28.1	34.6	35.6	31.1	31.9	35.0
	남		28.8	34.1	30.2	32.8	36.2	39.1
가족기업	여		-	-	-	0.5	0.5	-
	남		-	-	-	0.6	0.6	-
정부기관	여		5.4	9.7	10.2	10.8	11.2	10.0
	남		6.0	6.2	7.1	8.1	7.2	7.1
무보수가족노동자	여	36.1	37.6	29.5	30.2	30.6	23.3	23.1
	남	20.9	22.5	15.5	18.8	14.7	12.5	11.6

출처: 1960년 수치는 ILO, *op. cit.* (1990), pp. 608-611에서 재구성. 1966-88년 수치는 NSO, *op. cit.* (1990a), p. 688에서 재구성.

즉 필리핀의 산업구조전환의 실패과정이란 현실세계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보다 심화되는 빈곤상황과 소득 불평등구조에 직면하여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34] 특히 여성들은 보다 전근대적, 비공식적 노동부문으로 내몰리는 과정이었다. 필리핀의 산업화과정에서 여성노동은 전형적인 주변부 경제구조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실패의 부담은 남성보다 여성노동자에게 더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과 주변성은 다른 제3세계 국가의 여성노동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종속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노동시장을 통해 나타나는 가부장제의 보편적 규정력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필리핀의 경제발전 실패는 여성노동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설명을 보다 설득력있게 해주는 배경으로도 보여진다.

이러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성은 노동시장내에서 여성노동력을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이중적 영역 -- 작업장과 가정 -- 내에서의 이중적 역할

34) 마닐라지역 숙련노동자들의 1978년 임금수준은 1972년 보다 오히려 23.9%나 감소하였고, 비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은 31.6%나 감소하였다. Bello, *op. cit.*, p. 228 ; 또한 1971년 전체가구의 38.7%를 차지하던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1975년에는 46.5%로 증가하였으며, 소득분포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계층이 차지하는 국민소득내 비중은 1971년 54.0%에서 1980년 59.2%로 증가하였다. Vellegas, *op. cit.*, pp. 138-40.

-- 노동자이면서 주부 -- 에 대한 사회적 규정에 기인한다. 이에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이나 작업장과 그 외부 영역 (곧 가정영역)의 연계방식과 내용 등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관심을 여성내부로 한정시켜보자. 필리핀의 산업화과정이 여성들간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여성노동 내부의 계층별 양극화

필리핀의 산업화 과정은 여성노동내의 계층적 차이도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하겠지만 <표12>를 통해 직종내 성별 임금차이 및 여성내의 직종별 임금차이 추세를 살펴보자.

<표12> 필리핀 직종별 성별 월평균임금 1976,1981 (페소)

직종	여 성		남성		여/남(%)	
	1976	1981	1976	1981	1976	1981
전문·기술관련직	1,500	2,700	2,125	4,109	70.6	65.7
행정·관리직	2,812	5,252	4,212	6,938	66.8	75.7
사무관련직	1,212	2,395	1,425	2,706	85.1	88.5
판매직	1,477	1,076	1,496	1,590	98.7	67.7
서비스직(servant포함)	496	837	1,148	2,040	43.2	41.0
농·축산·임업노동자	887	404	1,611	438	55.1	92.2
생산·교통장비기사·임노동직	694	1,099	1,130	1,792	61.4	61.3
미분류	934	1,284	1,115	2,960	83.8	43.4

출처: NSO,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1984* (1985); UN-ESCAP, *op. cit.*, p. 185에서 재인용.

우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고, 하위 직종일 수록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도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직종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전문·기술관련직과 판매직의 경우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의 임금비는 각기 1976년의 70.6%, 98.7%에서 1981년에는 65.7%, 67.7%로 낮아졌다. 서비스직의 경우는 직종자체의 임금수준도 낮은데, 그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 격차는 (1976년 43.2%, 1981년 41.0%)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전문직을

제외한) 상층 여성직종(행정관리직, 사무직)에서의 남성대비 여성임금비는 1976년에서 81년 사이 상승한 반면 하층직종(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에서의 여성임금비는 하락하고 있다.[35]

그러면 여성내부 직종별 임금격차는 어떠한가. 1976년 여성의 임금이 가장 높은 두 직종인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과 임금이 가장 낮은 두 직종인 서비스직 생산직간의 임금비가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남성과 비교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위임금직종 대비 상위임금직종의 임금비:
상위직종 임금 ÷ 하위직종 임금 >

	행정관리/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	행정관리/생산	전문기술/생산
여성 1976	5.6배	3.0	4.1	2.2
1981	6.2	3.2	4.7	2.5
남성 1976	3.7	1.9	3.7	1.9
1981	3.4	2.0	3.8	2.3

(표 12에서 재구성)

저임금직종인 서비스직 및 생산직에 대한 고임금직종인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여성임금비는 모두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클 뿐더러, 수출산업화가 실패로 치닫던 해당기간 동안 상대적 격차도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노동의 양극화 추세는 실제 여성노동의 내용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앞에서 살펴 본 주요직종별 여성노동의 내용은 양극화된 여성노동 사이의 실제적 연관관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

무엇보다 1988년 현재 23만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가정부 일은 상층 여성노동과 하층 여성노동간의 직접적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지배 시기의 초기 경제발전은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을 명확히 구분지어 내는 과정이었다. 다수의 하층부 여성이 임금노동자로서 공장노동자나 농업노동자, 서비스직종에 진출하게 되는 반면, 상층부 여성의 가정주부화도 가속화되어 1903년 54%이던 전업주부율(조사시 응답범주가 non-gainful workers인 경우)은 1960년에는 70%로 (조사시 응답범주가 housekeeper인 경우) 늘어난다. 한편 같은 시기 여성내 서비스직 종사율도 14%에서 23%로 늘어난다.[36] 이렇듯 상층부 여성의 가사일을 다른 여성노동자(가정부)가 맡아하던 역사는 이미 초기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부터 보여진다.

35) 농업내 남성대비 여성임금비가 1976년의 55.1%에서 1981년의 92.2%로 급상승한 것은 농업 임금자체의 절대적인 감소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6) Eviota, *op. cit.*, pp. 66-67.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이 관계는 종속경제내에서도 상층부여성의 사회노동이 다시 증가되면서 하층부에서는 사회노동에 참여하는 상층부여성의 가사일을 대신 맡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상 필리핀에서 가정부나 기타 가사보조자(helper, maid)를 고용하는 것은 중상층 가정에서도 만연한 일인데, 이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그만큼 가사보조서비스직의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시간당 임금의 개념이 확실한 경우에는 '작업장'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노동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쌀 수 밖에 없겠지만, 필리핀의 반봉건적 경제구조와 지연된 경제발전, 지속적인 빈곤상황에서 가정부일은 숙식을 제공해 주기에 낮아도 된다고 인식된다.[37] 동시에 한달에 쌀 35kg 가격으로도 온종일 남의 집에서 가사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하층부 여성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말해준다. 이런 일이라도 얻어 집안의 '먹을 입'을 줄여야하는 빈곤상황, 이 정도의 현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노동시장이 없는 왜곡된 경제상황이 하층부 여성이 속한 가구의 경제위기인 것이다.

즉 가사보조 서비스직 여성의 증가로 인해 필리핀의 상층부 여성은 자본주의적 가사용역상품이나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제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노동에 높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제3세계의 종속적 경제발전과정은 대규모 실업군을 이루어 끊임없이 임노동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급격한 산업구조전환과 저임금에 기반한 착취적 공식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비공식부문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특히 제3세계의 여성노동이 대거 비공식부문의 영역에 속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필리핀의 경우 여성의 비공식부문 노동은 이러한 종속적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여(또는 이로 인한 착취)외에도 필리핀의 상층부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여를 수십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층부여성처럼 자신의 가사일을 대신해 줄 노동을 고용할 수 없는 하층부 여성은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국가의 저발전적 상황과 자본주의적 노동시장내의 차별, 가정내 여성역할로 인한 3중적 부담을 모두 지고 있는 다수의 하층부 여성노동자의 사회노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제는 무엇일까?

Ⅳ. 필리핀 하층여성노동의 생존양식;
가부장제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잠정적 설명

여성의 사회노동이 가정내 여성의 역할규정으로 인해 차별받는다면, 그러한 차별적 조건내

37)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주도 이런 사고에 동의하는 듯 보인다. 1991년 대도시 중상층 주택가의 가정부 월급은 500페소 내외인데 (이미 앞장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당시 그 지역 쌀값으로(상품의 경우 1kg에 15페소 내외) 나누어 보면 약 쌀 35kg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에서도 다수 하층부 여성들의 사회노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직 가정영역내에 남아있는 다른 여성들의 지원이다. 필리핀의 상층 여성노동참여가 다른 계층의 여성을 통해 자신의 가사노동을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하층부 여성들은 자기 계층내 가족과 친족연계망내의 다른 여성들로 인해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사이의 충돌을 무마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노동을 위한 연계망도 구축해 나감을 볼 수 있다.

필리핀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내 여성의 중요성은 다른 사회에 비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주의로 대변되는 필리핀 가부장제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식민지이전 시기 여성이 사회에서 누리던 높은 지위가 가정과 친족이라는 한계영역내에서 여성의 책임감으로 상당부분 살아남아 노동참여의 적극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필리핀의 토착적(indigenous) 여성문화와 이후 식민지 역사를 통해 부여된 가부장제적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 이전 필리핀 여성은- 여타 동남아시아지역과 마찬가지로- 서구기독교사회나, 중동모슬렘, 동아시아 유교사회 등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왔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고 보여진다.[38] 이러한 여성의 평등성은 일차적으로 당시 사회체계의 성격에 기인하는데, 스페인 이전의 필리핀은 해안선을 따라 산만하게 분포한 친족집단 중심의 부족사회(tribe society)였다.[39] 이 시기 경제는 사회적 사용가치에 기반하였고 특정 친족집단내 의무를 완수하는 체제였으며,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자기충족적 생계유지단위였다. 이에 여성의 영역도 현재와 같이 공사가 명확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당시 여성문화의 특징을 명확히 개념화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와 비교하여 볼때 가정영역내의 '자율성'과 사회영역에서의 '활동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영역내 자율성은 자율적인 성문화와 유연한 일부일처제 결혼관계,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양계적(bilineal) 친족체계 등을 의미하며, 사회영역내 활동성이란 농경과 상업 등 다양한 노동의 영역과 여성역할의 중요성, 성별분업에 대한 차별적 사회적 인식의 부재 등을

38) Alzona, *The Filipino Women' He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1565-1933* (Manila: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1934) ; M. J. Manazan, "The Filipino Woman: Before and After the Spanish Conquest of the Philippines", M. J. Mananzan, ed., *Essays On Filipino Women* (Manila: St. Scholastica's College, 1987) ; A. Maranan, "Do Women Really Hold Up Half the Sky?", Manazan, *op. cit.* ; A. Reid,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8) 등 참조. 특히 Reid는 15-17세기 동남아 지역에 대한 선교사나 무역상들의 탐방기를 통해 식민지 이전 시기 동남아사회의 동질적 요소들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데, 특히 여성의 자율적 문화와 사회내의 높은 지위가 동남아지역을 타지역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준다.

39) 동남아국가들과는 달리 스페인 이전의 필리핀은 과거 동남아시아를 휩쓴 앙코르문화(캄보디아중심)로 대변되는 고대대륙국가의 영향도 스리비자야문화(수마트라중심)으로 지칭되는 고대해양국가의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단지 무역을 통해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Milton Osborne, *Southeast Asia: Illustrated Introductory History* (Sydney: Allen & Unwin, 1988), pp. 47-48.

의미한다.[40]

필리핀에 가족제 생산양식에 기반한 가부장적 조직원리나 사회적 관계가 산업적 생산양식에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스페인 시기이다. 식민지이전 시기 필리핀여성의 자율성과 활동성은 토지소유제와 지방호족층의 발현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사회로의 변화가 가톨릭이라는 종교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질된다. 이는 기존의 동남아 여성문화와 완전히 상반되는 서구 기독교 성문화가 경제적 지배를 기반으로 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지배는 형식적으로는 여성해방적 지향을 보여 제반 교육과 정치참여에 여성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경제발전단계에 필요한 부수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며, 확산된 대중교육은 단절된 과거 여성의 자율적 전통 대신 서구적 여성관을 (그리고 서구식의 여성해방주의도 함께) 도입하였다.

현 필리핀 가부장제의 주요 특징은 가족주의(familinism 또는 domesticity)와 종교 이데올로기로 요약된다. 필리핀 사회내 가족과 종교는 사회조직적 측면이나 이데올로기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필리핀 사회에서 가족에 소속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은 생존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며, 이에 가족은 개인이 복종과 자기실현을 통해 가장 의미있는 존재로 자리잡게 해주는 원천적 장소이다.[41] 기본단위인 핵가족(또는 부부중심가족, conjugal family)은 종교적 표현과 의례에 의해 신성화됨으로 신성불가침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며, 모계까지도 친족범주에 포함되는 양계(兩系)친족제도와 종교적 의례 -- 대부모(代父母)제도 등 -- 를 통해 형성되는 유사(類似)친족제도는 핵가족을 통해 형성된 기본

40) 여성은 구혼이나 성관계에서도 매우 활발하고 자율적이였다. 신부대(bride-wealth)는 아프리카의 경우와는 달리 신부측 남성에게가 아니라 신부에게 속하는 돈이었다. 혼인유형은 양 편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이혼이 용이한 일부일처제였으며, 비록 혼전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일단 결혼 후에는 양쪽 모두에게 정절과 헌신이 요구되었고, 손쉬운 이혼은 결혼기간 동안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주거유형은 모거(母居)제였고, 부부는 공동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상속도 자녀의 성이나 연령에 따르지 않고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혼전 성관계의 자유스러움과 손쉬운 이혼은 신부대에 잠재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상업적 요소와 결합하여, 15세기 이후 외국상인들의 유입에 대해 매춘보다는 일시적 혼인관계나 계약혼이 성행하였다. 출산율도 낮았고 피임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여성의 자율성을 말해준다. Reid, *op. cit.*, pp. 151-55.

한편 이원론적 우주관에 기반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립,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남성일과 여성일의 구분은 확연하였다. 즉 남성성은 흰색(정자), 따뜻함, 하늘, 형식, 통제, 인위적 창조성으로, 여성성은 붉은색(피), 차가움, 대지, 내용, 자발성, 자연적 창조성으로 대변되었다. 남성일은 금속 및 동물과 관련된 쟁기질, 정글개간, 사냥, 금속일, 목공일, 집짓기, 정치지도자, (외부로 부터 들어온 모슬렘, 기독교 등의) 형식적인 국제종교인의 역할로, 여성일은 파종, 추수, 채소재배, 음식준비, 직조, 도자기제조, 상업, 조상숭배의례수행, 영혼과의 매개자로 규정되었다. Reid, *op. cit.*, p. 162. 여성은 남성과 다른 기능을 수행했으나, 여성의 활동은 모심기, 추수, 직조, 상업까지를 망라한 것이었고, 그들의 재생산역할은 사회내 여성의 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술적이고 의례적인 힘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Reid, *op. cit.*, p. 146 ; F. G. Elesterio, *Essays on Philippine Religious Culture* (Manila: De La Salle Univ. Press, 1989), p. 12.

41) Niels Mulder, "Everyday Life in the Philippines: Close Family Ties and the Individual", *Review of Women's Study* 1, 2 (Quezon City: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1990), pp. 74-75.

가족관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켜 상호확대된 연대와 지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과 친족 사이의 유대관계는 여성을 주축으로 하여 유지된다.[42]

필리핀의 불안전한 경제상황속에서 사회내 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 가족은 생계의 문제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가족내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느끼고 있음이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보여진다.[43] 이에 여성이 사회노동에 참여할 때 집안의 가사일과 육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고, 일차적으로는 가구내 다른 성원들, 나이든 여자아이, 미혼남녀, 남편 등 다른 가구원들이 가사와 육아를 나눠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혼의 남녀가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결혼을 기점으로 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데,[44] 이는 성을 불문하고 가구원에게, 특히 자녀나 미혼 가구원에 대

42) 이에 대해 라미에즈(Ramiez)는 필리핀 가족의 진정한 내부논리는 전통주의(traditionalism)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라 보고 긴밀한 가족유대는 역사적 경험속에서 형성된 "불안의 문화(culture of insecurity)"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한다. 즉 가족에 대한 성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는 대개 경제적 이유 -가족성원들간의 경제적 상호부조- 때문이며, 크리스마스, 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 가톨릭적 종교의례가 중요기능을 하는 가족, 친지모임을 통하여 감정적 유대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Ibid.*, pp. 74-75. 이에 여성은 가정내에서는 경제 및 감정적 유대의 주축으로 - 심지어는 모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지기도 한다(tagasolo syndrome). *ibid.*, p. 78 -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가족내 유대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남편과 자녀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받고, 교회내에서는 신실한 신자로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받는다.

43) V. A. Miralao, *Women and Men in Development*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 Press, 1980) ; J. F. Illo, *Fisher, Traders, Farmers, Wives*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 1992).

44) 성별 혼인상태별 지역별 평균가사노동시간의 예 (1979년 1-3월)

지 역	여성 (미혼)	남성*	여성 (기혼)	남성
평균가사노동시간(주당)				
Candelaria(대도시)	18.5	14.4	50.8	14.7
Sta. Cruz(소도시)	22.5	10.2	60.0	21.3
Sto. Nino(농촌지역)	22.9	11.4	55.7	19.2
가사노동참여율(%)				
Candelaria(대도시)	92.5	92.5	100.0**	94.0
Sta. Cruz(소도시)	83.6	80.3	98.2	85.5
Sto. Nino(농촌지역)	82.1	81.8	98.2	80.7

출처: Miralao, *op. cit.*, p. 12.

* 미혼남성의 경우(특히 Candelaria의 경우) 가사노동의 내용은 장보기, 빨래, 다림질, 물긷기, 바느질, 아이보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인용자주].

** 대도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참여율이 소도시나 농촌지역과 달리 100%인 것은 대도시 경우 조사단위가 상류층 주택가를 포함하고 있지않다면 오히려 농촌지역의 조사단위 보다 중하층으로 동질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용자주].

해 주부가 상당한 권 위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부인이 사회노동을 하는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도 아내 가사노동시간의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45]

그러나 사회노동을 하는 기혼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를 가장 책임있게 도와 주는 사람들은 주변의 여성친척(남편쪽이나 아내쪽 모두)들이다. 수출가공지대인 바딴(Bataan)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에 대한 조사는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는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돌본다, 함께 사는 여성친척이 돌본다, 가까이 또는 멀리 사는 친척이나 시부모 친정부모에게 데려다 맡긴다는 사람이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46] 다른 많은 연구들도 중,하층 여성에게 있어 폭넓은 친척연계망이 근처에 사는 여성끼리 가사와 육아를 서로 돌봐주고, 이농민들의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함께 거주하여 부담스러운 숙식비를 절감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전략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7]

나아가 확대된 친척연계망은 여성들간의 직업알선, 하청 일감소개, 가정부일 소개 등 직접적인 사회노동 연계망으로도 작용한다. 일로(Illo)의 연구는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양계친척에 기반한 가구들이 노동조직과도 많이 일치하며 경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지역에서의 일상적 대화에는 할머니(inana), 시누이나 처제(hipag), 시동생이나 처남(bayaw), 대모나 대부(kumpadre or kumare)등의 친척호칭이 아주 빈번히 등장하며, 친척중심으로 여성들간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뚜르노한(turnohan; 사람을 모아 매주 모두가 얼마씩 돈을 내고 한사람 씩 돌아가며 갖는 일종의 계모임)이 운영된다.[48]

즉 하층부 여성에 있어 토착적 여성문화의 자율성과 활동성은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가족내 여성에게 더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이지 않은 확대된 양계친족구조라는 친족제도는 여성의 사회노동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을 여성친족성원들 위주로 상호부조체계를 구축하는 생계전략적

---

45) 수치는 위의 조사결과 참조. 한편 필리핀의 네 어촌지역에서 어부로, 상인으로, 농부로, 또 주부로 사는 여성 10인의 생애사연구인 Illo의 연구에서는 가사일과 양육, 가정의 결정사항 등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Illo, *op. cit.*

46) I. Zora-Feranil, "Female Employment and the Family: A Case Study of the Bataan Export Processing Zone", G. W. Jones, ed., *op. cit.*, p. 399.

47) Zora-Feranil, *op. cit.* ; CAW, Tales of the Filipine Working Women (Hong Kong: CAW 1984) ; del Rosario, *op. cit.* ; Gabriela NWC, *op. cit.* ; E. S. Ordonez, "Workers as Cultural Activists", *Review of Women's Study* 1, 1. (Quezon City: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 R. Pineda-Ofreneo, "Women and Work: Focus on Homework in the Philippines", *Review of Women's Study* 1, 1 (Quezon City: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1990) ; Martinez-Sicat, *op. cit.*, 등에 실린 수기 및 생애사 참조.

48) Illo. *op. cit.*

연결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 맺는 말

필리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현상은 '필리핀의' 경제와 가부장제 양자 모두의 성격을 통하여만 설명될 수 있다. 여성노동에 대한 경제와 가부장제 양자의 규정력은 많은 연구들이 설명의 전제로 상정을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결합양상이나 연결구조를 밝히는 보다 이론적인 작업은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구체적 수준에 적용하는데 아직 그 의미와 적합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아직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이론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부장제 설명틀의 수립은 결국엔 다양한 지역과 시기의 구체적 역사와 문화연구를 통하여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동남아지역의 여성노동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커 보인다.

제3세계란 용어가 잔여개념(residual concept)이기에 제3세계의 이질성과 다양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즉 제3세계내 식민지유산의 공통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라는 구체적 경험의 국가간 차이는 크며, 서구적 근대성과 대비되는 제3세계의 전통성(traditionality)이란 결국 비서구성을 의미하는 인종중심주의적 관념일 뿐이고, 정치나 경제의 영역에서도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 이질화 및 다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49] 그러나 제3세계가 지속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것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푸코(Foucault)식으로 말하자면 제3세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중심부적 지식과 권력의 담합의 산물이였다는 점이 더 중요하며, 이에 이를 주변부의 자아발견적 각성의 논의로(예를 들면 민중의 관점이라던가) 전환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지 모른다.[50]

제3세계의 여성노동 역시 각 지역의 경제발전유형과 가부장제 역사 및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필리핀 여성의 경우 계급과 성 그리고 종속경제간 상호영향력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나아가 자율적 여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지역의 여성연구는 '주변부의 주변부인' 제3세계 여성들에 있어 '자아발견적 각성'의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배경을 제공한다.

필리핀 여성들이 보여주는 가중된 노동을 떠맡는 적극성은 가족에 대해 책임지고 희생하

49) 신윤환, "제3세계와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논단』 1990년 1월호 (1990).
50) 임현진, 『제3세계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3).

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족주의를 매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적극성은 자본주의화 과정 속에서 여성억압과 착취의 결정적 고리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필리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여성노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성들도 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파악을 가정이라는 한계내에 머무르게 한다. 가정이라는 한계적 영역은 어찌보면 공식적이고 근대적인 영역을 남성에게 넘겨주면서 움켜쥐고 있는 여성들의 반대급부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즉 필리핀 여성에 있어 가정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박차고 나서야 할 억압적 굴레인 가부장제적 장치라기 보다는 사회노동영역에서 비공식, 비근대화 부문으로 밀려나 사라져 버린 여성들의 본래적 활력이 숨겨져 있는 영역일 수 있다. 이는 다방면에서 다중적인 여성의 노동참여를 독려하는 가족주의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단적 해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 자율적 여성문화를 지니고 있던 동남아 여성이 자본주의라는 성차별적 경제적 멍에를 (서구적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까지 한 셋트로 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고 일방적인 것일 수 없다.

가족의 영역에서 좀 더 나아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반공식적인 활동의 활발함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점도 주목된다. 이미 언급한 농어촌지역의 뚜르노한(turnohan)와 같이 사회노동을 위한 비공식적 금융조직이 여성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음은 주목된다.[51] 또한 직업조직이나 정부조직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보다 낮으나 지역내의 공식적인 사회활동조직(Jaycees, 4H 등)이나 이웃간의 모임(Kapitbahayan, Damayan, 운동모임 등)에서의 참여는 비슷하거나 더 높다.[52] 전문직 여성들과 여성시민들의 활발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참여도 특징적인데, 1990년의 여성조직에 대한 한 조사에서 전문직 여성모임은 84개로 전체 여성조직의 30%를, 시민모임은 69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회에 기반한 모임은 42개로 전체의 15%이다).[53]

'주변부의 자아발견적 각성'의 논의로의 전환은 자본주의화 과정내 피억압 집단들의 중층적이고 주체적인 적응과 저항에 문화적,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과도 연결된다.[54] 이미 과도하게 강조되어 온 자본주의의 메카니즘과 결정력 속에서 문화와 역사에 주목하여 소위 '저항의 자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학문적 노력은 과거 세계 어느 지역보다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던 동남아 여성들의 위상이 자본주의체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51) Illo, *op. cit.*

52) Miralao, *op. cit.*, p. 43.

53) Tancangco, "Wome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Philippines",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4 (1990), p. 330.

54) 대표적 연구로는 E. P. Tompson의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 Willis의 *Learning to Labor*, A. Ong의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등을 들 수 있다.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동남아지역의 여성연구는 최근의 이러한 학문적 논의들을 보다 풍부히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시도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보다 생동감 있는 동남아 각국의, 각부문의, 여성노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도된 필리핀 여성노동에 대한 한 기초작업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신윤환, "제3세계와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논단』, 1990년 1월호 (1990).

임현진, 『제3세계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대출판부, 1993.

조옥라,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연구 I』, 청하, 1988.

조은, "가부장제와 경제", 『한국여성연구 I』, 청하, 198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필리핀 '2월혁명'』, 민중사, 1987.

Amarles, B. M., "Female Migrant Labor: Domestic Helpers in Singapore",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4,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Alzona, *The Filipino Women: He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1565-1933*, Manila: Univ. of the Philippines Press, 1934.

Beechy, Veronica, "Women and Produc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me Sociological Theories of Women's Work", Annette Kuhn and Ann Marie Wolpe, eds., *Feminism and Materialism*,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Bello, Walden, et al., *Development Debacle: The World Bank in the Philippines*, Third World Pub.: 김홍상역 (1985), 『세계은행과 독재정권』, 사계절, 1982.

Boserup, Ester,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Sydney: Allen and Unwin, 1970.

Buraway, Michael, "The Anthropoligy of Industrial Work",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8 (1979).

Committee for Asian Women(CAW), *Tales of the Filipino Working Women*, Hong Kong: CAW, 1984.

Cruz, P.A., "Filipinas for Sale",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 1, 1985.

del Rosario, R., "Life on the Assembly Line",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 1, 1985.

Elesterio, F. G., *Essays on Philippine Religious Culture*, Manila: De La Salle Univ. Press, 1989.

Estrada-Claudio, S., "The Psychology of the Filipino Woman", *Review of Women's Study* 1, 2,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Eviota, E.,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London: Zed Books, 1992.

Feliciano, M. S.,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in the Philippine Context", *Review of Women's Study* 1, 2,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Hartmann, Heidi,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1, 3 (1976).

Hutchcroft, P. D., "Oligarchs and Cronies in the Philippine State: The Politics of Patrimonial Plunder", *World Politics* 43 (1991).

Illo, J. F., *Fisher, Traders, Farmers, Wives*, IPC, Ateneo de Manila Univ., 1992.

Israel-Sobrichea, "The Ideology of Female Domesticity: Its Impact on the Status of Filipino Women", *Review of Women's Study* 1, 1,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Jayasuriya, S. K., "The Politics of Economic Policy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Marcos Era", R. Robinson et al. eds., *Southeast Asia in the 1980's*, Sydney: Allen & Unwin, 1987.

Jones, G.W., ed., *Women in the Urban and Industrial Workforce: Southeast and East Asia*, Australian National Univ. Delelopment Studies Center Monograph no. 3, Canberra: ANU Press, 1984.

Lim, Linda, "Women Worker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Malaysia and Singapore", Women's Studies Program Occasional Paper no. 9, Univ. of Michigan: "다국적 기업의 여성노동자-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의 전자공업의 경우",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78.

Lim, Linda, *Women Workers i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Bangkok: ILO-UNCTC, 1985.

_____, "Labor Organizaton Among Women Workers in Multinational Export Factories in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 Business* 6, 4 (1990).

Llaguno, J., "One Women's Way: Housework and Homework", *Review of Women's Study* 2, 1,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1.

Lopez-Rodriguez, "Patriarchy and Women's Subordination in the Philippines", *Review of Women's Study* 1, 1,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Manazan, M. J., "The Filipino Woman: Before and After the Spanish Conquest of the Philippines", M. J. Mananzan ed., *Essays On Filipino Women*, St. Scholastica's College, 1987.

Maranan, A., "Do Women Really Hold Up Half the Sky?", M. J. Manazan ed., *Essays On Filipino Women*, St. Scholastica's College, 1987.

Martinez-Sicat, M., "On Being Blind, Poor, Unmarried and a Woman in the Metro Manila", *Review of Women's Study* 1, 2,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Miralao, V. A., *Women and Men in Development*, IPC, Ateneo de Manila Univ., 1980.

Mulder, Niels, "Everyday Life in the Philippines: Close Family Ties and the Individual", *Review of Women's Study* 1, 2,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Ong, Aihwa,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Factory Women in Malaysia*,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87.

_____, "The Gender and Labor Politics of Postmodern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0 (1991).

Ordonez, E. S., "Workers as Cultural Activists", *Review of Women's Study* 1, 1.,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Orozco, W. S., "Economic Refugees: Voyage the Commoditized",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 1, 1985.

Osborne, Milton, *Southeast Asia: Illustrated Introductory History*, Sydney: Allen & Unwin, 1988.

Pineda-Ofreneo, R., "Women and Work: Focus on Homework in the Philippines", *Review of Women's Study* 1, 1., UCWS,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Reid, Anthony,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8.

Salgado, Pedro V., O. P., *The Philippine Economy: History and Analysis*, Quezon City: R.P. Garcia Pub., 1987.

Salinas & Liamson, "Too Little, Too Late", The Philippine Women's Research Collection Phamphlet Series no. 1, 1985.

Tancangco, "Wome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Philippines",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4,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Tapales, P. D., "Women, Migration, and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Focus in Australia",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4, Univ. of the Philippines, 1990.

T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rmondsworth: Penguin, 1980.

Tonguthai, Pawadee, "Women and Work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UN-ESCAP,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AP, 1987.

Torres, A. et al., eds., *The Filipino Women in Focus*, Bangkok: UNESCO, 1989.

UN-ESCAP,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in Asia and Pacific*, Bangkok: UN-ESCAP, 1987.

Villegas, B. M., "The Economic Crisis", J. Bresnan, ed., *Crisis in the Philippines*, NJ: Princeton Univ. Press, 1986.

Ward, Kathryn B., "Women in the Global Economy", Gutek, Steinberg and Larwood eds., *Women and Work: An Annual Review 3*, SAGE, 1990.

Willis, Paul, *Learning to Labor*,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1: 김찬호·김영훈역,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민맥, 1989.

Young, K., "소유양식과 성별분업", Wolf & Kuhn eds., 강선미역, 『여성과 생산양식』, 한겨레, 1986.

Zora-Feranil, I., "Female Employment and the Family: A Case Study of the Bataan Export Processing Zone", Gawin W. Jones, ed., *Women in the Urban and Industrial Workforce: Southeast and East Asia*, Australian National Univ. Development Studies Center Monograph no. 3, 1983.

〈통계자료 및 단체소식지, 신문〉

한국 여성개발원, 『여성관련통계지표』, 1989.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1989 Philippine Yearbook*, Manila, 1990.

_____, *Occupational Data Bulletine, 3rd Qrtr. 1980-1989*, Manila, 199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45-89*, Geneva, 1990.

_____,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0*, Geneva, 199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Washington D. C.: Oxford Univ. Press, 1988.

_____,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Washington D. C.: Oxford Univ. Press, 1990.

Committee for Asian Women(CAW), *Asian Women Workers Newsletter*, 각호, Hong Kong.

Gabriela National Women's Coalition, *Gabriela Women's Update*, 각호, Manila.

The University Center for Women's Studies(UCWC), *Panarau*, 각월호, Quezon City.

Philippine Daily Inquirer.